

카니발 축제의 가면에 대한 연구

한 순 자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f the Masks for the Carnival Festivals

Soon-Ja Ha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University

(투고일: 2009. 5. 28, 심사(수정)일: 2009. 7. 27, 게재확정일: 2009. 8. 15)

ABSTRACT

Carnival is an allowed chance to express ordinarily suppressed and overlooked emotions. Especially with strong meaning of daily overthrow masks, masquerades, and mask-costumes are essential for expressing methods and festival personality reasons. Carnival in modern society without losing a significant portion religion in a format suitable for the era of secular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has been created of nothing, that is not a reflection of society is also a cultural phenomenon of its own internal social and external conditions through a variety of means can analogy cultural phenomenon is a st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omes from the carnival festivities, religious background, but the daily routine of life to know who joined his escape with the conduction of the role, going to enjoy the satire and humor, using the Dress to the eruption, which means that the form of the festival variety of analysis and with the victory of the expression of cultural phenomena and features on the festival and the dress for you should you wish to study.

Key words: carnival(카니발), masks(가면), secularization(세속화), humor(해학), satire(풍자)

I. 서론

인간 생활에서 종교의식은 신앙에 대한 것과 인간의 삶이 어우러진 행사였으며 한편으로는 축제였다. 서양의 전통적인 축제문화는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한 종교 행사가 축제의 형태로 전승된 경우가 많으며 행사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되고 계절의 순환에서는 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 문화와 전통 등 삶의 형태들이 어우러져 표현되는 장으로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풍요로운 생산에 대한 기원과 감사를 위한 행사, 삶의 통과 의례에 따른 행사, 종교적인 의미와 결속을 위한 행사들이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형성되었다. 전통적인 축제는 오랜 역사와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사에는 가장(假裝)이나 가면(假面), 전통복장들이 등장한다. 이들 축제는 과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재 존속하는 전통적인 축제들은 과거의 의식과 현재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존재하게 된다.

축제를 비롯한 이러한 문화의 전승은 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되면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들이 의미를 잃거나 필요성이 없어져갔으나 최근에는 다시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점차 안정된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과 삶의 의의를 찾으려 하고 전통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의 카니발 축제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그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상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 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의 즐거움과 삶의 여러 면을 음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행사를 치르기 위한 부대 행사를 통하여 상업적인 가치도 얻게 된다. 따라서 패션 시장의 한 장으로 관심을 갖고 활용한다면 색다른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카니발 축제는 평상시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을 표현하도록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로¹⁾ 특히 일상성 전복의 의미가 강하고²⁾ 축제성격과 표현수단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가면(假面), 가장(假裝), 가면복장(假面服裝)이 등장한다. 현대사회의 카니발 축제는 상당부분 종교성을 상실한 채 이 시대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형되고 속화(俗化)되어 왔으며 무에서 창조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반영이며 또 하나의 문화현상이므로 사회 외적인 조건과 그에 따른 내적인 의미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카니발 축제가 종교적인 배경에서 유래하였으나 일상적인 삶의 면면과 연계하여 일상에서 탈출하여 역할의 전도, 풍자와 해학을 즐기기 위하여 가면, 가장복장을 이용하여 욕구를 분출하였다. 이는 축제, 특히 카니발 축제의 성격이 복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축제에서 가면이나 가면 복장의 의미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가면 관련 선행연구³⁾⁴⁾⁵⁾에서는 무용에서의 상징성이나 가면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현대 패션에 표현된 가면의 형태를 연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면의 전승이 크게 남아 있는 카니발 축제와 가면의 유래와 역사를 함께하여 그 의미가 축제 형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문화현상과 축제의 특징적인 표현방식의 수단으로써 이용된 가면, 가장복장을 고찰하여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가면 심리를 현대적인 디자인 이미지와 디자인 발상의 도구로 활용 할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자료와 관련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자료를 중심으로 카니발 축제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축제와 가면복장의 문화적 연계성을 분석하여 학문적 자료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현재에도 진행되는 카니발 축제 중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라인, 쾰른 카니발, 프랑스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브라질 리오 카니발로 축제 지역을 선정하여 특징적인 문화로 전승되고 있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II. 카니발의 기원과 역사

종교의식이나 행사는 신앙에 대한 집단적인 표현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은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카니발은 사육제(謝肉祭)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교와 연계된 행사지만 종교적인 경건한 의미보다는 사순절(四旬節)이전 대체로 3일 동안 벌이는 행사로써 일상의 굴레를 벗고 일탈 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속죄와 금욕을 하면서 40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단식하며 기도한 것에 따른 종교적인 금욕 기간이다. 카니발은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탕 먹고 마시며 향연을 즐기려는 의도와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에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적인 변화를 기념하는 축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카니발은 비종교적인 행사지만 부활절이라는 종교행사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일탈된 행사로 속죄, 부활 등의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카니발의 절기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맞추어 정해지며 사순절 예비절기의 시작은 공현축일(公顯祝日)⁶⁾로 알려져 있다.⁷⁾

카니발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한다. 첫째는 그리스와 라틴 세계에서 로마력을 기준으로 한해의 마지막 달인 2월에 로마에서 행해지던 봄 축제에서 정화와 맹세의 의식에 사용되던 배 모양의 마차행렬을 '배 마차'(Carrus navalis)라고 하였던 라틴어의 유래로 본다. 두 번째는 라틴어의 고기여, 그만이라는 금육의 뜻으로 카르네 발레(carne vale),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카르넬 레바레(carnem levare), 고기를 치우거나 없앤다는 카르넬레바리움(carnelevarium)을 어원으로 보고 있다⁸⁾. 세 번째는 고기(Caro)와 잔뜩 배 불린다(Valiens)의 합성어로 보고 있다.⁹⁾¹⁰⁾

카니발 행사의 기원은 로마시대 그리스도교의 전파 초기에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농신제(農神祭:12

월 17일~1월 1일)인 이교적(異教的)인 제전을 절충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북쪽 지방에서는 동지제 등 고대 이교축제들과 관련하여 동지를 지나 겨울에서 봄으로, 즉,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통과를 의미하던 계절적인 축제¹¹⁾가 그리스도교와 연계되어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제와 주의 공현제를 합하여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남국에서는 야의 축제인 카니발이 되었다고 유추하기도 한다.¹²⁾ 이는 북유럽지역의 민속 신앙과 농경축제의 기반위에 생겨난 중세의 여러 축제들이 그리스도교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의해 흡수되었으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주신(酒神) 디오니소스(Dionysos)와 농경신(農耕神) 사투르누스(Saturnus)¹³⁾를 숭배하는 이교도의 축제였지만 중세시대부터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종교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카니발의 이면에는 그리스도교와 더불어 각 민족의 전통 민속신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잔재되어 있다.

교회는 카니발의 자유, 방종, 일탈의 성격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그리스도교와 지역의 민속신앙은 서로 반목적인 관계에서도 깊고 지속적인 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카니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용 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의 민속신앙과 융합을 이해하여야 한다. 카니발의 초기 민속축제 형태는 농촌에서는 봄을 맞아 풍작과 복을 비는 기원 행사로 가면, 가장으로 악령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려는 뜻을 가졌다. 이러한 카니발 축제는 가면, 가장, 변장을 통하여 무질서에서 시작된 관행으로 성과 속, 남과 여, 주인과 하인의 역할 전도 등의 역할 뒤집기¹⁴⁾와 풍자, 해학을 거치면서 재생과 자유, 빛, 선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이는 기쁨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의 규율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렬, 대규모의 가면과 가장 무도회, 노래, 풍자적, 과격적인 연극 등 광적인 행위로 거꾸로 된 세상을 찾는 제한 없는 자유의 표출이었다.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카니발 축제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카니발이 시작되는 날은 국가나 지역의 풍습에 따라 다르다. 독일의 뮌헨(Munich)과 바이에른(Bayern)

에서는 카니발이 공현축일인 1월 6일에 시작되며 쾰른(Köln)과 라인(Rhein) 지방에서는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된다.¹⁵⁾ 프랑스에서는 재의 수요일¹⁶⁾ 전의 화요일과 사순절의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대부분 오순절¹⁷⁾ 주일에 시작되어 오순절의 화요일에 끝나지만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의 수요일까지 진행되기도 한다.¹⁸⁾ 카니발과 연관된 본격적인 술과 광란의 축제는 재의 수요일 이전 3일 동안 절정에 이르며 참회의 화요일에 끝나는데 이 마지막 며칠의 명칭도 지역마다 다르다.

카니발의 축제지역은 초기에는 로마가 중심이었으나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따라서 확대 되었다. 현재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ezia), 피렌체(Firenze), 프랑스의 니스(Nice), 독일의 쾰른, 스위스의 바젤(Basel) 등 비교적 가톨릭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에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므로 로마 가톨릭의 전승이 큰 지역이나 나라에서 성행한다.¹⁹⁾ 이 밖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브라질의 리오(Rio de Janeiro) 등지에서도 성행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지역에서는 가톨릭의 이 무절제한 축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육제 축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는 별로 행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카니발 축제 가면의 역할과 의미

카니발은 그 기원에서부터 가장무도회 이상으로 변장을 요구하며 또 변장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기조로 하여 방종이 폭발되었다.²⁰⁾ 이러한 요구를 위해서 가면은 자연스러운 수단이었다.

가면은 머리 전체나 온몸을 가리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는 좁은 뜻의 변장, 화신(化身)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적인 형태나 연극가면을 말한다.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가면이 만들어져 왔으며, 만들새도 형질 조각으로 소박하게 만든 단순한 형태부터 눈, 코, 귀 등의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것까지 다양하다. <그림 1>²¹⁾, <그림 2>²²⁾에서 가면이 표현하는 내용도 신(神), 사자(死者), 요괴(妖怪) 등 초자연적인 존재의 가면부터 인간과 각종 동물 등의 가면이 있으며, 이것을 만드는 재료도 다양하다.

가면의 역사는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해괴한 모양의 가면은 이집트나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문화권에서 자주 발견되고, 북유럽 문화권에서는 섬세하고 자연스런 사실적인 묘사와 표정을 담은 인물형<그림 3>²³⁾ 가면, 긴 겨울, 죽음, 어두움에 대한 위협적인 악령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소와 사슴의 흉측한 형상의 원시동물형 가면<그림 4>²⁴⁾, 기괴하고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 마귀 모습, 등이 있다.²⁵⁾ 처음에는 수렵생활을 하던 원시인이 수렵 대상

<표 1> 카니발 축제의 지역적 특성

문화권	북유럽권	지중해권	기타
기원	-케르만족 중심의 긴 겨울, 죽음, 악령에 대한 극복 행사 -계절 변화에 따른 봄맞이 행사	그리스 로마의 농경신(農耕神), 주신(酒神)에 대한 생산의 풍요 기원 행사	지역적인 민속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절충과 삶의 필요한 욕구에 의함
유래	지역적인 고대 민속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절충으로 신년 축제로 변화	종교적인 의미와 기후적인 조건의 절충으로 야외축제 형태로 변화	현실적인 삶에서 일탈의 장으로 정신적, 심리적 재충전의 장으로 변화
의미	-허락된 일탈 -풍자, 해학을 통한 자유의 표출 -상호교환적인 사회적 소통, 커뮤니케이션 -부활, 재생, 빛, 선의 승리, 삶의 재충전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의미
축제 지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북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미국



〈그림 1〉 연극 중 광인의 역할가면. 축제문화사, 2008, p. 290.



〈그림 2〉 마녀축제 마녀의 역할가면



〈그림 3〉 독일 여자수상 메르겔의 풍자가면

인 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장용으로, 후에는 살상한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는 그 주력(呪力)을 몸에 지니기 위한 주술적 목적에서 비롯하여 차차 종교적 의식과 민족 신앙의 의식용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와 같이 축제에서 가면은 일탈하고, 추구하고 싶은 정체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1. 가면의 역할

민속학상 주요한 불가사의 중 하나는 원시사회에서 가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변신의 도구는 극도의 종교적인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는 점이다.²⁷⁾ 가면에는 신화와 현대성이라는 이중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고, 이런 이중성을 발판으로 가면놀이의 사회심리가 작동한다. 가면의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질병과 유해한 화장품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 주는 효과와 겨울날 외출에서 방한을 위해서 쓰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물리적인 기능보다 심리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²⁸⁾

인간은 축제 속에서 끊임없이 파괴하고자하며 스스로 모든 세속적인 허울과 위선을 벗어던지거나 모든 세속적 허상을 감추고자 하며 그러한 수단으로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온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였다.²⁹⁾ 가면은 축제, 즉 현기증, 흥분 및 유동성이

라는 권위의 공백기에 나타나는데 축제 때에는 모든 것이 다시 생기를 얻기 위해서 일상의 질서들이 일시적으로 파괴된다.³⁰⁾ 이때 가면은 자연과 사회 모두를 다시 활기차게 해주어 젊어지게 하며 소생시켜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축제를 '허락된 일탈'이라는 표현으로 성과 역할의 전복을 일시적이거나 가능하게 한다고³¹⁾ 하였다. 특히, 가면 축제는 사람들이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기고 평소엔 할 수 없는 행동과 패션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³²⁾ 하였다. 카니발은 가면을 통하여 일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과 억압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고 새로운 질서를 만끽하는 환희의 장으로 가장이나 변장으로 뒤집기 관행과 익살스런 풍자와 패러디 등으로 매우 무질서하였다.³³⁾ 이러한 가면들은 카니발의 구체적인 상징물로 전환하여 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적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둠과 회미함을 견어내고자 하는 수단이 되었다.

카이와(Roger Caillois)는 가면의 역할을 놀이의 참여자가 가면을 통한 두 번째 얼굴 아래에서 다기능, 동시성을 통하여 엑스터시(ecstasy)와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고³⁴⁾³⁵⁾ 하였다. 가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성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불안감에 대한 방벽으로 불안감의 표출 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표 2〉 카니발 축제의 가면의 역할

역할	내용
물리적	-변장이나 화신의 목적으로 초자연적 존재, 인간, 각종 동물형 -외부 위협에서 보호, 방한, 위장을 위한 도구
심리적	-정체성, 성, 역할 등 추구하는 대상으로 변신 -불안, 불평등적 모순, 억압 갈등으로부터 일탈의 수단
주술적	-초자연적 현상, 계절적 순환, 종교의식, 역사적 사건의 상징적 도구 -자신에 대한 다기능, 동시성을 통한 엑스터시와 현기증 경험 수단
사회적	-가면의 성격과 상징에 따라 사회적 상호교환의 표출 수단 -역할 전도, 풍자와 패러디를 통한 일상성의 탈출
문화적	-일상 삶의 제약과 금기 구속에서 복합 커뮤니케이션 놀이의 수단 -문화전통의 역사성 전승

일상과 거리감을 주는 가면 놀이는 불안감 앞에서 도피 할 수 있으며 가면 아래에 기분 전환이 추구되고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할 수 있다. 가면은 오직 특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그 의미를 지닐 뿐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도를 지닐 수 없지만 잠시 동안 얻게 된 정체성과 지속적인 불안감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바흐친(Mikhail Bakhtin)³⁶⁾은 가면을 통하여 역할의 바뀔, 변신에 대한 기쁨과 획일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면을 매우 유용한 소품으로 보았다. 카니발에서 가면 문화는 현재 문명화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유희의 가능성을 증폭하는 상징적 매체로써³⁷⁾ 시끌벅적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신비를 열어 보이는 도구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장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축제는 특정한 복장이나 가면 등의 의례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적인 순환이나 종교의식,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식 등에서는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때 가면은 성격과 상징에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상호교환의 상황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출 수단인 것이다. 가면은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지만 축제놀이가 주는 한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놀이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한 예로 〈그림 5〉³⁸⁾와 같이 중세 유럽에 바보축제는 새해 벽두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그러운 가면을 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경건한 사제와 근엄하고 권위적인 귀족들에게 조소를 퍼붓고 교회나 궁정의 웅장한 의식을 조롱하기도 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풍속이나 관

례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었으며 최고 권력자인 왕이나 주교를 야유하는 것까지도 용납되었다.³⁹⁾ 이러한 일탈을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면이나 가장, 변장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그림 6〉⁴⁰⁾ 이 때문에 카니발 혹은 카니발적 이라고 하면 반드시 카니발 축제만이 아니라 변장과 마스크가 등장하는 축제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 이해되기도 한다.⁴¹⁾

이와 같이 카니발은 해방된 삶으로 일상적인 생활 질서가 무너지면서 보통의 삶에 제약을 가하던 모든 금기와 구속과 제재가 일시적으로 제거되어 일상의 예절이나 위계질서, 연령, 지위, 재산 그 어떤 사회적 인 규범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사람과 사람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거대한 가면을 쓰고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해방과 자유분방함의 표출 수단이며 이는 가면의 역할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가면 축제의 의미

가면은 차별적, 신비적, 과거 지향적, 자연적, 복합 절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적, 지역적,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카니발 행사에서 가면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일탈을 추구하는 수단이면서, 종교적인 연계도 갖들어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한다.⁴²⁾ 행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축제의 기원, 역사, 전



〈그림 4〉 그로테스크한 악령가면, *세계의 축제*, 2003, p. 163.



〈그림 5〉 바보축제의 무서운 동물가면



〈그림 6〉 그로테스크한 해골가면행렬

통에 바탕 한 자유, 저항, 해방, 풍자 등의 민중적인 기치 및 특성을 표출하기 위하여 일상의 틀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며 그 표현 수단으로⁴³⁾⁴⁴⁾ 화려한 의상, 가면이나 가장, 변장, 대형 조형물, 광인들의 배, 광인 조합, 광인들의 왕, 어릿광대의 나무꾼, 떠들썩한 음악, 카멜레(kamelle)⁴⁵⁾ 콩페티(confettis),⁴⁶⁾ 골탕 먹이기, 전복된 세계 등을 표현하여 역할전도, 풍자, 해학, 그로테스크의 의미를 전달한다.

1) 역할 전도 · 풍자

메츠거(W. Mezger)는 가면 놀이가 정체성과 놀이를 병행하는 것이며 잠정적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이는 축제의 가면 놀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상에서 지니지 못한 경험이나 가능성을 테마로 하여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실체들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면이 주는 비속 박성, 난폭함, 반란의 바람은 일상적인 삶에서 발휘될 수 없는 바람, 갈망을 담고 있으며 원래의 모습이 요구하던 인내와 자제로부터 벗어나서 성 역할, 지위, 성과 속에 대한 역할의 전도를 통하여 욕구의 표현과 일상성의 탈출이나 풍자를 하며 정체성과 놀이를 추구할 수 있다.

바흐친은 카니발이 거꾸로 된 삶으로 모든 금기가 제거된 카니발 공간에서는 거꾸로 된 논리, 뒤집힌 논리, 반대로 된 논리가 상식을 제압한다고 보았다.

왕이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이 되며 성직자는 모독당하고 광대가 추앙받고, 익살과 욕지거리와 불경이 경건한 기도를 대신하고 걸과 안, 위와 아래, 앞과 뒤, 우매함과 현명함이 수시로 자리가 바뀌며 권위는 추락하고 엄숙주의는 조롱당한다고 보았다.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종종 옷을 뒤집어 입거나 성별이 뒤바뀐 의상을 걸치거나 모자 대신 양말이나 냄비 같은 것을 머리에 쓰거나 하는 것은 뒤집힌 세상 거꾸로 된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즉,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카니발에서 상생과 공존의 원리를 발견하였으며 카니발의 거꾸로 된 세상은 극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의 공존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카니발은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심오한 고난의 시기인 사순절과 접경하므로 카니발이 보여주는 분방함의 극치에는 곧이어 시작될 사순절의 참회와 극기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바흐친은 카니발적인 세계관의 핵심을 교체와 변화, 죽음과 갱생의 파토스(pathos)라고⁴⁸⁾ 하였다. 즉 카니발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부활과 갱생의 축제며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이 필요하며 타인 속에 투영된 자기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⁴⁹⁾고 하였다.

2) 해학 · 그로테스크

카니발에서 가면을 통한 광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인이나 그로테스크 한 가면놀이는 인간의

정체된 불안 심리에 해학을 경험하게 한다. 광인의 의미는 인간의 내부와 우주의 기가 자유롭게 순환하기 위한 순환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광인을 신과 소통하는 존재로 여기고 존경하며 동시에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서 안도와 해학을 경험하게 된다.⁵⁰⁾ 또한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은 호기심을 끄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홀리게 되고 색다른 즐거움을 얻는다.⁵¹⁾

카이저(Wolfgang Kayser)는 가면의 그로테스크 효과는 가면을 통하여 놀라게 하고 바로 안도의 웃음을 유발 할 수 있는 것⁵²⁾이라고 하였다. 이 그로테스크의 기능은 믿음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으로 소외되는 세계에 대한 놀라움과 새로운 체험을 맞이하는 사회 현실에서 파악 할 수 있다.⁵³⁾ 일상의 진지함에서 해방되어 풍자적 요소로 비판적 사회인식을 이루는 것으로 그로테스크 가면은 공포감을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순간적인 공포에서 현실로 들어오면서 안도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즐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휠스만(Heinz Hulsman)은 가면의 개념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정체성과 차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⁵⁴⁾이라고 하였다. 가면축제는 외관, 걸모습의 확장된 놀이 경향으로 즐거움과 웃음을 추구하여 가면 변장으로 규범을 일탈한 개인주의를 보고 그로테스크를 거쳐 즐거움과 해학을 얻으며 특별한 기간의 가면놀이를 통하여 불안감을 덮어 개인의 아이덴티티로 낙천적이고 즐거운 심성구조를 형성 할 수 있다고⁵⁵⁾ 보았다. 가면은 얼굴의 비율과 이목구비를 쉽게 과장 할 수도 있고, 겁을 주기위해서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용, 주문, 의식으로 이루어진 복합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차고 동적인 물건이다. 이상에서 가면의 상징과 의미를 정리하면 역할전도, 풍자, 해학, 그로테스크의 형태로 대별 할 수 있다.

IV. 카니발 축제의 가면 형태와 특성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니발 축제는 종교

적인 의미와 계절적인 연계와 지역적인 특성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축제의 성격이 다양하고 현대에는 해마다 테마가 정해지고 추구하는 성격도 다양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행사 내용이 다채롭다. 이 장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라인, 쾰른 카니발, 프랑스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브라질 리오 카니발로 각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으로 진행되는 카니발 축제를 통해 가면의 형태와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라인(Rhein), 쾰른(cologne) 카니발

오늘날 독일 지역의 카니발은 게르만 민족의 민간 신앙에 기초한 민속 축제와 지역별 전통행사에서 비롯되어 축제의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스, 로마인들이 와인, 노래와 춤으로 디오니소스와 바쿠스(Bacchus)를 받드는 봄 축제를 하였듯이 게르만 인들은 겨울이 지나 봄의 따뜻한 햇볕에 대한 신성함을 기리고 차가운 겨울 악마를 추방하는 뜻에서 축제를 벌였다. 중세 초기에는 이러한 민속 축제가 교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통행사 형태로 여전히 맥을 이어갔으나⁵⁷⁾ 점차 그리스도교와 절충되면서 지역적 특성이 또 다른 독창성을 갖게 되면서 다채로운 행사와 가면놀이를 통해 가면축제 형태로 발전하였다.⁵⁸⁾

독일의 라인 지역 쾰른 카니발은 고대축제와 같이 삶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을 마스크 분장을 통하여 역사 현실로 불러내어 생존에 부정적인 악령들을 몰아내고 삶의 풍요를 지켜주는 선신들을 기리는 축제 마당으로 이해한다. 남부 유럽지역의 카니발 가면이 즐겁고 익살스럽고 흥겨운 느낌을 표현한 것에 비하여 독일이나 북부지역의 카니발 가면은 계절적인 전통축제의 성격이 강한 무섭고 그로테스크한 가면<그림 7>⁵⁹⁾을 통해 해학과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있다. 게르만 민족의 오랜 풍습으로 계절 축제에서 그로테스크한 동물 가면이 종교행사와 카니발 축제에서 풍자와 패러디를 위한 현란한 가면행렬로 바뀌었다. 이 행렬은 여러 모양의 가면을 쓰고 연희자인 나르(Narren,우중, 어릿광대)로 변장하여 음



〈그림 7〉 2008퀵른카니발 가면



〈그림 8〉 축제 세상의 빛을 탐다, 2008, p. 257.



〈그림 9〉 퀵른 카니발축제 행진

악을 동반하고 거리를 거닐면서 놀이와 연희를 즐겼다. 가면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13세기 초, 볼프람 폰 에센바흐(Wolfram von Eschenbach)의 서사시 파르치팔(Parzival)⁶⁰에서 볼 수 있는데 이미 축제에 가면극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가면의 사용되어 왔고 14세기부터 도시의 사육제에서 가면풍습이 이미 정착되었다고 본다.

현재 카니발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면놀이는 중세의 교회에서는 이교적 미신풍습으로 규정하여 배타적이었지만 민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 중세 말기에는 길드조합에 의해 전문적으로 예술적인 나무가면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가면의 이름들도 중세에 쓰이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시적인 동물 가죽 탈, 검은 숲의 가면에 형질, 금속, 짚, 열매 껍질 그리고 나무를 재료로 이용한 많은 가면들이 있으며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보리수나무를 조각한 인물형 가면은 오늘날에도 많이 제작하고 있다(그림 8)⁶¹.

행사내용은 주로 거리에서 벌어지는 가장행렬을 중심으로 주점, 시사만평 극이 곁들여진다.(그림 9)⁶² 이는 성과 속의 권위와 질서에 반해 혼돈스럽고 파괴적인 놀이 문화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열어 놓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프랑스 니스(Nice) 카니발

프랑스에서도 카니발은 각 지방마다 고유한 전통

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중에서 니스 카니발은 전통적인 카니발 축제와 지역 특성의 기후 특산물을 문화 상품화 하면서 현재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니스 카니발은 그 해의 주제에 따라 가면의 특성이 정해지는데 주제에 따라서 만들어진 왕과 왕비, 시종, 익살꾼을 비롯하여 보통 낡은 옷에 짚, 또 어떤 때는 폭죽을 채워 만든 인형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였다. 행사의 형태는 〈그림 10〉⁶³, 〈그림 11〉⁶⁴, 〈그림 12〉⁶⁵와 같이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를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사육제 인형을 태우면서 카니발 행사가 끝난다.⁶⁶

니스 카니발은 13세기 말, 앙주(Anjou) 공작인 샤를(Charles) 2세가 사육제 기간을 보내려고 니스에 체류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휴양지로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발전 할 수 있었다.

17세기 초 교회는 카니발이 점차 폭력과 외설로 흐른다고 판단하여 '공공장소에서든 사적인 공간에서든 춤추지 말 것, 머리카 수염을 기르지 말 것, 밤이 오면 산책하지 말 것.' 등등의 규율을 정하고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기로 하였지만 그 규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마다 〈광인들의 신부〉라는 조식이 만들어서 카니발을 기획하고 통제하였다.⁶⁷

18세기에는 베네치아 축제의 영향으로 귀족들은 실내공간에서, 민중들은 거리의 전원적인 분위기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나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프랑스 혁



〈그림 10〉 2009 니스카니발



〈그림 11〉 다양한 가면.
가장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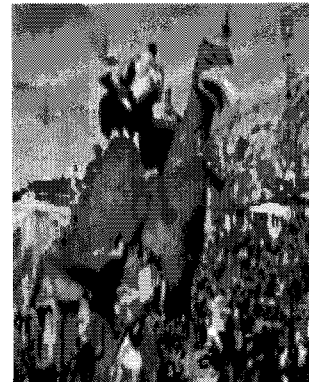
〈그림 12〉 2009 니스카니발



〈그림 13〉 꽃 주제 가장행렬



〈그림 14〉 카니발주제 가면,
가장



〈그림 15〉 2008카니발 주제,
가장

명을 겪으면서 시내중심의 공화국 광장을 축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확대되었다. 니스 카니발은 좋은 기후 조건과 자유로운 시민정신이 어우러져 화려하고 다채로운 행사의 성격을 갖는다. 1875년부터 주제를 정하고 상징적인 장식물들로 이루어진 퍼레이드가 카니발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부합되면서 축제의 성격이 형성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전승되면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병정들을 동반한 카니발의 왕이 마세나(Massena) 광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된다.⁶⁸⁾

개막행사에서는 가장행렬을 조직하고 행사기간에는 카니발의 틀 안에서 모두 가면을 쓰고 거리의 오페라나 연극 등을 공연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다. 마차 퍼레이드는 그해 테마에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아주 독창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진 마차와 거인 모형들이 춤과 음악을 동반하며 시내 전체를 행진한다. 〈그림 13〉⁶⁹⁾, 〈그림 14〉⁷⁰⁾, 〈그림 15〉⁷¹⁾와 같이 모든 금기가 전복되고 인간 깊숙이 내재된 광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카니발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은 축제의 마지막 날 카니발의 왕이 바다 한 가운데서 화형 되면서 막을 내린다.

3.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 카니발

베네치아 카니발은 가면과 더불어 그 의상 때문에 가면 축제라고 불린다. 베네치아는 연중 다양한 문화



<그림 16> 전통 가면복장



<그림 17> 가면복장 군중



<그림 18> 카니발 가면복장

행사가 마련되고 가면 및 의상 대회가 열린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적인 행사, 지형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울리히 쿤 하인(Ulrich Kuhn-Hein)은 베네치아 카니발의 분위기에 대하여 “베네치아 카니발의 독특한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환상적인 의상에서 나오는데, 그 화려함은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화를 의식적으로 암시 하는 것이기도 하다”⁷²⁾라고 평가 하였다.

베네치아에 가면이 들어온 것은 1204년에 베네치아의 총독(doge)이었던 엔리코 단돌로(Enrico Dandolo)가 제 7차 십자군 원정으로 점령한 콘스탄티노플에서 베일을 쓴 무슬림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유래하였다⁷³⁾고 한다.

베네치아에서 가면의 사용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서류는 1268년 5월 2일자로 되어 있다. 그 이후 몇 번의 법령 기록이 있는데 1339년에는 가면을 쓰고 밤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1458년에는 남자들이 여자처럼 가장을 하고 수도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연중 많은 기간 동안 가면을 착용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자 1608년에는 카니발 기간과 공식 연회를 제외한 시기에는 일반 시민과 귀족을 포함하여 이방인까지 모두 가면의 사용을 금하고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1658년에는 가면을 쓰고 무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신성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가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

는 법령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1699, 1718년에는 사순절 기간과 카니발 기간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 축일에는 가면의 사용을 법으로 금하였다. 1776년에는 쇠퇴한 가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들이 가면을 쓰지 않고 연극을 보러가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되기도 하였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멸망한 직후 사적인 잔치 이외에는 가면의 사용을 금지 하였으나 다시 카니발 기간 동안에 가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림 16>⁷⁴⁾과 같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가면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과 성별, 사회계층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았으며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는 무도회가 열렸으며 마음대로 가면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 가면 복장을 한 귀족들과 평민들이 뒤섞이어 매우 즐겁게 보내기도 하였다.⁷⁵⁾

역사적인 사건이 카니발에 표현된 것은 1571년의 레판토(Lepanto) 전쟁의 승리 후 열린 카니발, 1587년 말과 마차의 행렬을 주제로 한 행사, 1696년 남자 귀족들이 여자들의 복장을 하고 가장행렬을 한 카니발 등이 있다.⁷⁶⁾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베네치아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평민들은 계급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모두 함께 어울리면서 흥분과 기쁨을 만끽 하면서 파괴와 죽음,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을 만끽하였다.

<그림 17>⁷⁷⁾, <그림 18>⁷⁸⁾ 등과 같이 이 대회는 베

〈표 3〉 베네치아 전통 가면. 가장 형태

형태						
명칭	판탈로네 Pantalone	아르레키노Arie cchino	바우타 La Bauta	모려타 Moretta	젠다 Zenda	일 메디코 델라 페스테 Il medico della peste
가장내용 및 상징	베네치아의 가 면 복장의 정. 나이 많은 베 네치아 상인 상징.	교활하고 비천 한 하인, 콜롬비 나(Colombina) 여자 하인	흰색 가면, 검은 색 베일, 망토, 삼각형의 검은 모자. 카니발 변 장용	검은색 벨벳으 로 만들어진 타 원형의 가면, 남 성용명칭은 병 어리 가면	하류계층의 베 네치아 여인들 의 전통적인 카 니발 복장	흑사병 창궐 시 에 의사 가면 복 장으로 가면의 용도보다 방호의 목적

베네치아의 중심인 성 마르코(San Marco) 광장에서 펼쳐져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면 및 의상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가면과 의상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이 이루어진다. 시민들 또한 옛 전통 의상을 입고 가면을 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과거로의 여행을 즐긴다. 카니발 축제 기간 동안에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기이한 형태의 가면과 디자인과 색감이 현란한 의상으로 신비롭고, 관능적 모습으로 열광적인 춤이 곁들여지고 화려한 폭죽놀이, 민속오락, 황소사냥, 곡예사의 묘기 등 카니발의 떠들썩한 가장 무도회의 익명성 속에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면은 사회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가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가면마다 유래와 용도, 모양에 따라 각각의 명칭이 주어지 있다.

한편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가면. 가장은 실제의 계급과 신분을 표현 하며 필요 할 때마다 적당하게 골라서 과장을 하거나 풍자, 패러디를 하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로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발전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가장은 〈표 3〉⁷⁹⁾과 같다.

4. 브라질 리오(Rio de Janeiro) 카니발

리오 카니발 축제는 매년 2-3월에 성대히 열린다.

세계적인 축제로 화려한 의상의 무희들, 휘황찬란한 각종 퍼레이드, 흥겨운 삼바(Samba)⁸⁰⁾⁸¹⁾ 리듬과 정열의 삼바 춤이 있다. 리오 카니발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포르투갈을 통하여 들어온 가톨릭 문화와 본래의 라틴 전통, 브라질 흑인 노예문화가 합쳐진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에는 서민층내지 사회 하류층의 축제로 여겨졌으나 사회신분상의 차별이 사라진 현재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변모하였다.⁸²⁾ 이런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인 삼바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이 브라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노동에 필요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어 왔는데 이들은 힘든 노동과 굶주린 배고픔의 고통으로 고향을 그리워하였고 이런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고향에서 즐겼던, 노래와 춤을 추며 그 시간을 달랜 것에서 삼바가 비롯되었다. 카니발 기간 중에는 노예라는 사회 최하층의 신분도 자유의 몸이 되어 맘껏 즐기도록 허락되었고 그들에게 카니발은 각별한 의미가 되었으며 리오 카니발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³⁾

리오 카니발의 절정은 삼바 경연대회에서 비롯된다. 〈그림 19〉⁸⁴⁾, 〈그림 20〉⁸⁵⁾, 〈그림 21〉⁸⁶⁾와 같이 거리에 강렬한 삼바 리듬 밴드 음악이 흐르고 가장



〈그림 19〉 리오 카니발 참가자 복장과 가면



〈그림 20〉 리오 카니발 그로테스크 대형가면과 복장



〈그림 21〉 리오 카니발 가면과 페레이드 속 무희

〈표 4〉 카니발 축제와 가면의 특성

지역	행사의 형태	행사가면의 특징
펠른 카니발	-고대축제형태로 삶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기원적인 행사 -풍자, 패러디, 역할 전도를 통한 일탈을 위한 행사	-악령 형태의 그로테스크 형 풍요를 기원하는 선신형 -풍자, 패러디, 역할전도를 위한 정밀한 인물형, 동물형
니스 카니발	-일탈의 즐거움 추구하는 형태 -좋은 기후, 경관, 특산물을 이용하여 문화관광 상품화함 -꽃, 과일, 주제 모형 마차 행진	-해마다 주제가 정해져서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함 (ex: 1999년 20세기 왕, 2001년 새천년의왕) -주제에 따라 거대한 모형, 마차, 왕을 꾸미고 행사 참가자들도 독창적인 가면, 가장
베네치아 카니발	-종교행사, 폭죽놀이, 민속놀이 -독특한 가면과 의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표현함. -현실의 모든 것을 가면과 의상으로 덮고 평등과 즐거움만을 추구	-역사적인 사진, 인물의 표현(ex: 카사노바) -미래적인 무한한 상상력 시도
리오 카니발	-화려한 의상의 무희들 -위험찬란한 각종 페레이드 -홍겨운 삼바리듬과 정열의 춤	-원주민이나 동물로 변장 -영화주인공, 시사적인 인물가면 -유령이나 비현실적 세계를 표현한 가면

행렬이 이어지며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녀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거리를 행진하며 거리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한 사람들로 붐비고 광기에 가까운 정열적인 춤사위 열광적인 시민의 모습 등이 행사의 형태이다. 가면 모습들도 다양하며 원주민이나 동물로 변장하거나 영화 주인공, 유명 모습 등 독특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인기를 끈다. 이런 분위기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의 특징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이상 각 지역 카니발 형태와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니발 축제와 축제의 표현수단이 되는 가면과 가면복장의 역할과 의미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니발 축제 행사를 통하여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카니발 축제는 하나의 전복적인 행위이며 일정한 일탈행위를 유도한다. 오늘날의 합리적이고 복잡한

세계에서 구시대적인 카니발의 생활 감정을 불러내는 것은 낯선 감정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축제의 가면 놀이는 짧은 기간 감정순환의 장치로서 정신심리학적 기능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다시 적응하도록 하며 일상의 감정을 완화하여 불안감과 위대한 감정을 벗어나게 한다. 가면 문화는 생활세계의 거대한 구조의 종속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하는 표현으로 이러한 가면의 역할을 이용하고 축제의 장을 통하여 정체되어진 인간 심연의 감정을 자유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축제에서 가면의 활용 효과이며 지속적인 요구가 될 것이다.

가면은 지역문화의 기원에 따라서 다르다. 독일지역을 비롯한 북유럽은 계절적인 의미가 짙은 겨울, 죽음, 불안에 대한 대처 의식에서 그로테스크하고 위협적인 초기 가면이 민속축제에서 표현되던 것이 기독교 문화와 연계하면서 일탈과 자유,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지중해권의 가면은 그리스 문화권의 인간적인 삶의 표현방식이나 신화적인 제 의식에서 비롯하여 그리스도교 문화와 연계하여 옥외의 축제의 장에서 펼쳐지던 표현도구로 사용되었다. 현대적인 카니발 양상의 대표적인 리오 카니발에서 가면은 유럽이나 기타지역의 축제 양상과는 다른 기원에서 비롯하여 전통적인 카니발과 지역특성과 문화와 접목되어진 독특한 가면의 양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다.

카니발 축제에서 가면의 역할은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적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둠과 희미함을 견어내고자 하는 축제 목적에서 역할 뒤집기나 일탈, 회화화, 과장과 풍자를 위한 표현수단으로 가면이나 가장 · 변장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가면축제의 의미는 정체성과 놀이를 병행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포기 된 야생성, 바람, 갈망 등을 가면을 통하여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게 되고 불안한 심리의 정체성은 가면을 통하여 덮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카니발의 형태로는 독일지역의 카니발은 고대축제와 같이 삶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을 가면분장을 통하여 생존에 부정적인 악령들을 몰아내고 삶의 풍요를 지켜주는 선신으

로 기리는 축제의 장을 형성하면서 동물형, 인물형 등 다양한 가면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은 자유로운 시민정신이 표현되며 모든 금기가 전복되고 인간 깊숙이 내재된 광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카니발 왕국이 세워지고 해마다 테마에 따라서 독창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가장행렬과 가면을 통하여 축제의 성격이 이루어진다.

베네치아 카니발은 가면과 더불어 그 의상 때문에 가면축제라고 불리는데 베네치아는 연중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 종교적 행사, 지형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축제 중의 가면은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가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가면마다 유래, 용도,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주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의 성격은 흑인 노예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라틴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형태다. 가장행렬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녀들이 경쾌한 삼바리듬에 맞춰 거리를 행진 하고, 거리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한 사람들로 붐비며 원주민이나 동물로 변장, 영화 주인공, 유명 모습 등 독특한 모습으로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쓴다. 리오 카니발은 강렬한 삼바 리듬, 현란한 의상과 광기에 가까운 정열적인 춤사위 열광적인 시민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본 연구는 카니발 축제의 관점과 가면 분장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카니발 축제는 종교성과 일상성의 혼재 속에서 축제의 내재적 의미로 전복적이고 일탈적인 기능을 요구 하는데 기존의 관습체계가 정한 규율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축제 안에서 모든 사회적 계급의 서열, 금기사항, 사회적 규범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축제의 표현 도구로써 일탈, 해학, 그로테스크한 풍자와 아이러니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면, 변장, 분장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가면 심리를 현대적인 디자인 이미지로 활용하면 무한한 디자인 발상의 도구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형기, 이영임, 안소현, 이호경, 고호상 (2005). *가면과 욕망*. 서울: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p. 61.
- 2) 올리허 쿤 하인 저 심희섭 역 (2001). *유럽의 축제*. 서울: 컬처라인, p. 10.
- 3) 김경희, 이옥희 (2002). 무용가면의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10(4), pp. 404-418.
- 4) 임형란, 이미숙 (2004). 가면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 8(2), pp. 154-167
- 5) 김선영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면의 형태와 특성. *복식*, 58(4), pp. 13-25.
- 6) 공현축일(公顯祝日) 1월 2일-8일 사이의 연중 제1주일의 축일. 넓게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로 예수 스스로를 동방박사(三王)들과 온 누리에 나타나 보임을 뜻함.
- 7) 최형락 (1996). *가톨릭 교리용어집*. 서울: 계성출판사, p. 163.
- 8) 자료검색일: 2009.1.6. 자료출처: <http://betterface.kr>
- 9) 이기철 (2003). *베네치아 역사와 축제문화, 유럽의 축제문화*. 유럽정보문화센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209.
- 10) 김미성 (2006). *축제로 융화되는 민속신앙과 기독교 축제와 문화적 본질*.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181-182.
- 11) 베니야마 저, 서상원 역 (2006). *유럽에 빠지는 즐거운 유희*. 서울: 스타북스, p. 139.
- 12) 김동준 (2006). *세시풍속에 나타난 축제의 성과 속, 축제와 문화적 본질*.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56.
- 13) 베니야마저, 서상원 역, *앞의 책*, p. 135.
- 14) 윤선자 (2008). *축제의 문화사*.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p. 71.
- 15) 이민수 (2003). *낭만과 전설이 숨 쉬는 독일 기행*. 서울: 예담, pp. 89-95.
- 16)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 속의 절기로 이마에 재를 바르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한다. 이때 사용한 재는 성지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이다.
- 17) 부활절 전 50일로 사순절 앞 주.
- 18) 자료검색일: 2009.1.6. 자료출처: <http://betterface.kr>
- 19) 베니야마저, 서상원 역, *앞의 책*, p. 136.
- 20) Roger Caillois 저, 이상률 역 (1994).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p. 193.
- 21) 윤선자. *앞의 책*, p. 290.
- 22)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blog.ebslang.co.kr>
- 23)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monthly.chosun.com>
- 24) 원용희 (2003). *세계의 축제문화*. 서울: 백산출판사, p. 163.
- 25) 김면 (2003). *게르만민족의 전통의례와 문화정체성, 유럽의 축제 문화*. 유럽정보문화센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236.
- 26) 자료검색일: 2009.3.3. 자료출처: <http://images.google.co.kr/imgres>
- 27) 김형기, 이영임, 안소현, 이호경, 고호상. *앞의 책*, p. 13.
- 28) John Liggett 저 이영식 역 (1996). *얼굴문화, 그 예술적 위장*. 서울: 보고 싶은 책, p. 139.
- 29) 류정아 (2004). *축제인류학*. 서울: 살림출판사, p. 4.
- 30) Roger Caillois 저, 이상률 역, *앞의 책*, p. 131.
- 31) 류정아. *앞의 책*, p. 8.
- 32) 자료검색일: 2009.3.3. 자료출처: images.google.co.kr/imgres
- 33) 윤선자. *앞의 책*, pp. 1-3.
- 34) 김면. *앞의 책*, p. 263.
- 35) Roger Caillois. 이상률 역, *앞의 책*, pp. 122-147.
- 36) 바흐친(Mikhail Bakhtin). *러시아 인문학자*. (1895~1975) '카니발' 이론.
- 37) 유럽정보문화센터 (2003). *축제와 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63-91.
- 38)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www.segye.com>
- 39) 김용호 (2003). *스페인의 축제문화: 원형이 살아 있는 축제, 유럽의 축제문화*. 유럽정보문화센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 84.
- 40) 자료검색일: 2009.3.3. 자료출처: <http://kr.blog.yahoo.com>
- 41) 윤선자. *앞의 책*, p. 65.
- 42) 유럽정보문화센터. *앞의 책*, p. 261.
- 43) 김미성. *앞의 책*, p. 173.
- 44)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앞의 책*, p. 173.
- 45) 카멜레: 행사중에 관객들에게 뿌려주는 과자, 소형 기념품, 선전용 상품 등.
- 46) 콩페티(confetti): 작은 종이나 꽃가루 날리기.
- 47) 김면. *앞의 책*, p. 262.
- 48) 자료검색일: 2009.3.3. 자료출처: <http://images.google.co.kr/imgres>
- 49) 석영중 (2009). *한국경제, 2009, 2.21, 스포츠, 문화, 자료검색일 2009.3. 3.*
- 50) 윤선자. *앞의 책*, pp. 4-5.
- 51) John Liggett 저 이영식 역, *앞의 책*, p. 203.
- 52) 김면. *앞의 책*, p. 266.
- 53) 위의 책, p. 262.
- 54) 유럽정보문화센터. *앞의 책*, pp. 262-267.
- 55) 김면. *앞의 책*, p. 261.
- 56) 고대 로마에서 그리스신화의 디오니소스가 전래된 술의 신 바쿠스를 말한다.
- 57) 원용희. *앞의 책*, p. 132.
- 58) 유럽정보문화센터. *앞의 책*, pp. 238-239.
- 59) 자료검색일: 2009.3.3. 자료출처: <http://blog.daum.net/hny>
- 60) 자료검색일: 2009.3.24. 자료출처: <http://blog.daum.net/johnkchung/5218278>
- 61) 김규원 (2008).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 서울: 시공사, p. 257.
- 62) 자료검색일: 2009.3.24. 자료출처: <http://imgnews.na>

ver.com

- 63) 자료검색일: 2009.7.3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ipo22>
- 64) 자료검색일: 2009.3.24. 자료출처: <http://travel.dcinside.com>
- 65) 자료검색일: 2009. 7. 3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76kamja>
- 66) 올리히 쿤 하인 저, 심희섭 역, *앞의 책*, p. 24.
- 67) 오정숙 (2003). *문화 상품으로서의 지역축제, 유럽의 축제 문화*. 유럽정보문화센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 52.
- 68)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cafe.daum.net/cij-hanatur/X4q6/59?docid>
- 69) 자료검색일: 2009.3.22. 자료출처: <http://paris.klafir.or.kr>
- 70) 자료검색일: 2009.3.22. 자료출처: <http://www.lgtelecom.com>
- 71) 자료검색일: 2009.3.24. 자료출처: <http://www.kaltour.com>
- 72) 올리히 쿤 하인 저, 심희섭 역, *앞의 책*, p. 108.
- 73) 이기철. *앞의 책*, p. 211.
- 74)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tour.cabinstorey.co.kr>
- 75) 이기철. *앞의 책*, p. 215.
- 76) 원용희. *앞의 책*, p. 139.
- 77)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monthly.chosun.com>
- 78)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images.google.co.kr/images>
- 79) 이기철. *앞의 책*, pp. 213-219.
- 80) 삼바(samba)집단적인 춤, 또는 음악과 리듬. 어원은 mesemba, zambo(혼혈노예), zamba(원주민) 등의 어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 81) 원용희. *앞의 책*, p. 195.
- 82) 허용선 (2003). *환희와 열정의 지구촌 축제 기행*. 서울: 예담출판사, pp. 218-224.
- 83) 자료검색일: 2009.2.1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bj40meeting/>
- 84)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www.hani.co.kr>
- 85)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press.sportsseoul.com>
- 86) 자료검색일: 2009.4.6. 자료출처: <http://blog.join.com>